



1 강원랜드가 리조트 부문 사업 브랜드 하이원리조트를 통해 운영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하이원 하늘길 트레킹. 문체부 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2회 연속 지정될 정도로 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하이원리조트의 로봇 서빙 모습. 강원랜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을 통해 사람과 로봇의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구축했다. 3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해 태백에서 생산하고 있는 슬롯머신 'KL Saber', 올해 초 밀리핀과 첫 정식 판매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사진제공 | 강원랜드

혁신의 강원랜드 ‘도약 원년’... “신사업 확대”

힐콘도 지역 전체 ‘펫 빌리지’ 조성 박차
슬롯머신 첫 수출 성공...“亞 공략 전쟁을
로봇 레스토랑 ‘AI 더그릴’ 연내 문 열어
스마트기업 전환·ESG 경영 강드라이브



이상걸 대표

강원랜드는 강원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처음 세워진 복합리조트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던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핵심 사업인 게이밍 시설(카지노)이 휴장과 입장제한이 잇따르는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했고, 스키와 리조트 숙박, 워터파크 등 비카지노 부문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각 분야에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활발하다. 강원랜드도 2022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영업정상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계묘년 2023년 올해,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과 리조트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신수의 사업 개발

강원랜드는 지난해 3분기 매출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8%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는 리조트 부문의 웰니스 힐링, 스마트, 그린리조트 구현을 통한 업무혁신과 ESG 경영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신수의 사업 육성을 통해 비수기와 성수기의 매출 차이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강원랜드는 올해 비수기 객실가동률을 평균 60%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신수익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조성한 반려동물 동반 시설 ‘하이원 펫클럽’의 경우 올해 실내 놀이터와 수영장, 펫 트레킹 코스, 동물교감 중독 치유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궁극적으로 힐콘도 지역 전체를 ‘펫 빌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PB(자체 상표) 상품 사업도 본격계도에 올라 매출 21억 원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지역 기반의 스토리텔링 상품 개발을 통해 밀기티 상품성을 강화하고, 지역 식자재를 활용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채널도 확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31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상시 판매상품 100종 마련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슬롯머신 수출·건전성 A등급

핵심 사업인 게이밍에서는 꾸준히 개발해 온 자체 제작 슬롯머신 ‘KL Saber’의 해외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올 초 밀리핀과 첫 슬롯머신 정식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는 아시아 시장에서 17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260대를 자가공급해 8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대구 골든 크라운 카지노 6대, 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13대를 납품했다.

지난해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카지노 영업면적과 스탠딩 배팅 허용 등의 규제 완화에도 성공했다. 2023년에는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 포인트 제도를 통해 건전한 레저시설로서의 게임

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업 전환·ESG 경영 가속

강원랜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스마트 기업 전환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리조트 부문에서는 사람과 로봇의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구축했고, 로봇 레스토랑 ‘AI 더그릴’을 올해 개장 목표로 준비 중이다. 모바일 앱을 예약, 판매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골프장과 워터월드의 스마트입장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

카지노 역시 입장부터 칩스 관리까지 운영 전반에 걸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업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시스템 재구축에도 착수해 2024년 새 ERP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경영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 하이원 그랜드호텔의 객실 어메니티를 친환경 인증 플라스틱 프리 용품으로 교체해 연간 40만 개의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친환경제품 전환을 8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기업 육성 프로젝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하이원 멘토링강화’ 등 다양한 ESG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이상걸 강원랜드 대표는 “슬롯머신 제조는 관련 중소기업 육성, 지역 고용 창출, 외화 획득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강원랜드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차세대 ERP 재구축을 통한 스마트 기업 전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경영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15



1월27일부터 열리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 주요 행사장인 당골광장. 이곳에선 대형 눈조각 전시와 더불어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눈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태백시

눈 황홀한 눈축제 태백산이 부른다

3년 만에 정상 개최...27일부터 이색 전시·공연



이상호 태백시장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등에서 27일부터 5일간 펼쳐지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는 ‘이상한 동화마을 태백’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대형 눈조각은 2월 5일까지 전시된다.

태백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해 박창근, 박상철, 류지광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의 주요 행사장인 당골광장에서는 대형 눈조각 전시와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눈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눈축제 캐릭터 댄스와 지역예술팀 공연도 볼 수 있다.

또한 야생화공원에서는 ‘전통 한방차 체험’과 태백의 숨겨진 명소나 아름다운 태백의 모습을 담은 ‘태백 전국 관광 사진전’ 전시가 펼쳐진다.

이밖에 대형 눈미끄럼틀 체험 및 얼음썰매,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 겨울놀이 체험, 연탄불과 기차화덕을 사용해 쪼파나 고구마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체험부스도 준비돼 있다. 29일에는 ‘태백산 눈꽃 전국등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지연못에서는 야간 문화공연과 별빛페스티벌, 캐릭터 유등 등이 관광객을 기다린다.

태백 | 유원상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0일(금)
서울 60/0	인천 20/0	춘천 60/0	
-2 -1	-3 -2	-4 0	
강릉 30/0	대전 60/0	전주 60/20	
1 3	-1 1	1 4	
광주 30/30	대구 30/0	부산 10/0	
1 4	0 4	4 8	
창원 10/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 6	7 8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9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0일 (금) 음력: 12월 2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출,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당장은 괴롭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육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황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쟁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승진이나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감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가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멸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학업·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때다. 상대와의 의견이 전혀 다른 날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중용을 유지하면 길함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